

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 Early Childhood Educators' Teacher Self-Efficacy and Play Support by Personality Types

성안나¹ 김연하²

Anna Sung¹ Yeon Ha Kim²

ABSTRACT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personality typ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examine the variations in teacher self-efficacy and play support based on these personality typ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02 early childhood teachers responsible for children aged 3 to 5 years ol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luster analysis and analysis of covariance.

Results: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 "sensitive group" (29%), the "conservative group" (10%), the "passive group" (28%), and the "active group" (34%).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scores were observed for teacher self-efficacy and play support across these personality types. Notably, the active group demonstrated the highest levels of both teacher self-efficacy and play support. Consequently, the active group emerged as the most effective and functional personality type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types in their teaching practice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in-service and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that take into account these personality types.

¹ 제1저자

경희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생

²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e-mail : yeonhakim@khu.ac.kr)

Key words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type, Teacher Self-Efficacy, Play Support

I. 서론

세상에는 수 많은 직업이 존재하며 사람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살아간다.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은 총 1,231개로 구성되며, 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성격과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수 년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성격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심리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도 개인의 성격이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성격과 직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성격과 직업 간의 조화를 제시하는

Holland의 성격과 직업의 적합성(Personality-Job Fit) 이론이다. Holland(1958)는 성격에 적합한 직업군이 있다는 관점에서 타고난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성과도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개인의 성격유형과 직업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직업탐구나 학교, 기업의 채용 등 다양한 곳에서 Holland의 직업흥미검사, MBTI, Big5 검사 등의 여러 성격검사(personality tests)가 활용되고 있다. Barrick와 Mount(1991)는 여러 성격검사 중 Big5 검사는 성격과 직업 관련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라고 하였으며, Howard와 Howard (2010/2014)는 장기 검사-재검사 일치도에서 Big5 검사의 적중도는 90%를 상회하고 단기 검사-재검사 일치도에서 80% 정도의 적중도를 보여 측정의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특히 직업환경에 부합하는 최상급의 검사라고 설명했다.

Costa와 McCrae(1992)는 기존의 다양한 성격검사들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성격요인들을 발견하고 최종 Big5 모델을 개발하였다. Big5 성격요인은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개방성(Openness)은 공상, 심미안, 감성, 실행력, 아이디어, 가치 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적 자극과 변화, 그리고 다양성을 좋아하는 특성이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유능성, 질서 정연함, 책임감, 성취 추구, 자기규율, 신중성 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 정도를 말한다. 신경증(Neuicism)은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취약성 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외향성(Extroversion)은 따뜻함, 사교성, 자기주장, 활동성, 흥분추구, 긍정정서 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원만성(Agreeableness)은 신뢰성, 솔직성, 이타심, 순응성, 겸손함, 온유함 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를 나타낸다(Costa & McCrae, 1992). 이렇듯, Big5 검사는 개인의 성격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사 도구로써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Göncz(2017)는 교사의 성격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강민정(2007)은 유아교사의 성격특성은 교육을 수립할 때 의사결정과 교수방법에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이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의 성격과 업무수행 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직업으로써, 유아교사를 들 수 있으며 Barrett(1989)는 교사의 성격특성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의 선호와 반영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유아교사의 성격은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업무 수행을 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성격 5요인과 교사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심리적 특성(예: 소진, 정서노동, 직무만족도, 효능감, 회복탄력성)에 관련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며(강민성 등, 2021; 고정완, 2019; 서보순, 2015; 신소정 등, 2010; 염연숙 등, 2021; 최은실, 최인숙, 2019; 황은희, 이영애, 2021), 행동적 특성(예: 놀이성, 창의적 교수행동, 창의적 역할수행)을 살펴본 연구(김경은, 2014; 박정진, 장유진, 2021)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 완전한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아교사의 성격은 행동적 특성에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

서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성격과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변수중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되었다. 변수중심 분석방법으로 진행된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 표본 전체의 성격 5요인의 점수를 평균화하여 점수에 따라 특정 요인이 ‘높다, 낮다.’ 만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교사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필요한 지원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수중심 분석방법이란 변수의 응답을 점수화 시켜 해당 점수가 또 다른 변수의 점수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즉,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모수통계이다. 반면, 사람중심 분석방법은 분석대상의 응답점수를 바탕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는데 이상적이다(Chow & Kennedy, 2014). 즉, 사람중심 분석방법은 성격요인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는데 용이하며 어떤 성격유형의 유아교사가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유아교육 분야에 긍정적 자원으로 활용 될 것이다.

성격과 사람중심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진우 등(202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류집단, 과잉통제집단, 평균집단, 회복탄력성 집단 등 네 집단으로 성격을 유형화하였다. 회복탄력성 집단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성실성이 모든 집단에서 핵심역량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명숙 등(2019)도 교육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 중간 수준의 적응적 성격, 낮은 수준의 적응적 성격으로 세 집단을 유형화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대학생할 적응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성격유형에 따라 개인의 적응과 역량에도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성격유형도 유아교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성격과 유아교사의 업무수행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심리적 특성중 하나로 교사효능감을 들 수 있다.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신념 중 하나로서 꾸준히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변인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한 척도들도 다양하다(신은수 등, 2004; 하연수, 김혜순 2022; Enochs et al., 2000; Gibson & Dembo, 1984; Riggs & Enochs, 1990). 본 연구에서는 지극히 심리적 개념에 치우치거나 특정적인 상황(과학, 수학, 놀이)에서의 효능감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서 교사 자기 효능감과 성격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 자기 효능감이란 교실을 관리하고 학생들을 참여시키며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다(Tschannen-Moran & Hoy, 2001). 또한, 김양은과 김연하(2008)는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습을 조성하고, 학부모와 동료 등 주변환경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다차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일 속성이 아닌 개인의 역량에 대한 신념체계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격과 교사 효능감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erera 등(2018)은 적당히 높은 외향성과 높은 수준의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특징을 가진 집단의 교사가 높은 교사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사람중심 분석방법을 통해 교사의 성격을 유형화하고 기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을 살펴본 것에 의의가 있으나, 국외 연구로써 호주의 교사가 대상이 되어 문화 및 언어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의 교사 실정과 비교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박정진과 장유진(2021)의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사의 성격 5요인과 놀이교수효능감 간의 유

의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변인 간의 영향 정도만 알 수 있는 변수중심 연구가 진행되어 성격을 유형화 한 집단 간의 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다. 그 외 MBTI 검사를 통해 교사 효능감(자기효능감, 놀이교수효능감, 과학교수효능감)을 측정한 연구(김애경, 2015; 단현국, 유영의, 2006; 정미영, 안효진, 2012)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MBTI 검사는 심리적인 어려움 및 부적응과 관련한 내용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진달래, 2016) 자신의 성격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Big5 검사는 특성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의 언어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여러 문화권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성격을 다섯 가지 요인을 통해 상호독립적으로 설명하고 높은 신뢰성을 증명하는 Big5 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제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9 개정 누리과정(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에서는 놀이중심의 철학 아래 유아의 놀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수행을 ‘놀이지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격과 놀이지원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정진과 장유진(2021)은 영유아 교사의 신경증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방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높은 신경증을 나타내는 교사들을 선별하고 배양하여 교육을 통한 상호작용 및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변수중심 연구로 진행되어 신경증이 높은 교사가 실제로 누구인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아교사의 성격특성과 2019 개정 누리과정 속에서 교사의 창의적 역할수행에 대해 연구한 황은희와 이영애(2021)는 성격 5요인 중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등 창의성과 관련 있는 ‘개방성’ 보다 ‘성실성’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더욱 필요한 요인임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변수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교사의 창의적 역할을 적합하게 수행하는 집단과 취약한 집단을 구분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유아교사의 성격과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지향하는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창의성으로 국한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 백은미(2018)는 교사의 성격유형(MBTI)에 따른 하루일과 및 운영방식, 그리고 유아와 상호작용을 질적연구로 진행하였다. 교사의 개별 MBTI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일과와 환경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나 표집수가 작아 다양한 유형별 성격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이처럼 유아교사의 성격을 유형화하여 집단별 놀이지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의 개인 성격을 유형화하여 기능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놀이지원 수준을 점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성격과 직업의 적합성(Personality-Job Fit) 이론을 바탕으로 대표적으로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Big5 검사를 활용해 사람중심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유아교사들의 성격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사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이 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떠한 유형의 집단이 교사로서 바람직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 파악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유형의 집단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성격요인에 따른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직중인 3세부터 5세까지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유아교사 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편의표집하였으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모든 응답자가 누락 없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02)

	구분	N(%)	M(SD)
근무기관 유형	공립, 병설, 단설유치원	55(18.20)	
	사립유치원	61(20.20)	
	가정·민간 어린이집	83(27.50)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103(34.10)	
담당반 연령	만 3세	18(5.96)	
	만 4세	111(36.75)	
	만 5세	96(31.79)	
	혼합연령	77(25.50)	
최종학력	전문대학 졸업 이하	117(39.00)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185(61.00)	
담당반 교사 수	1명	106(35.10)	1.75(.65)
	2명	165(55.00)	
	3명	29(9.60)	
	5명	19(.30)	
교사 연령(년)			31.57(4.62)
총 경력(월)			74.30(43.00)
교사 대 유아비율(명)			9.71(5.82)

2. 측정도구

1) Big5 성격유형

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Goldberg(1992)가 개발한 5요인 성격특성 척도인 IPIP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등(2004)이 번안한 문항을 직접 제공 받은 권수경 (201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요인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은 개방성(예시: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가득차 있다.’), 성실성(예시: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신경증(예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외향성(예시: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원만성(예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등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이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교사 자신의 성격특성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에 대한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개방성 .70, 성실성 .77, 신경증 .84, 외향성 .83, 원만성 .76이며, 전체는 .81이다.

2)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

유아교사의 교사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andura(2006)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 TSES)를 우리나라 유아교사용으로 타당화한 김연화와 김양은(200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 자기 효능감 특성에 대한 유아교사의 지각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은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13문항(예시: ‘유치원(어린이집) 활동에 부모들을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유아들이 교사들을 신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교수 7문항(예시: ‘유아들이 어려워하는 과제를 해야 할 경우 유아들이 그 과제에 집중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교육활동에 관심이 적은 유아들을 지도할 경우, 그 유아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지역기관 연계 4문항(예시: ‘유치원(어린이집) 활동과 지역 사회단체들(예: 노인정, 소방서)을 연계시킬 수 있습니까?’, ‘유치원(어린이집) 활동과 지역에 있는 타교육기관(예: 인근 초등학교, 대학교)을 연계시킬 수 있습니까?’, 의사결정 참여 5문항(예시: ‘유치원(어린이집)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필요한 교육자료나 도구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등 총 29문항이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교사 자신의 효능감 지각 수준을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에 대한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84, 교수 .74, 지역기관 연계 .71, 의사결정 참여 .56이며, 전체는 .90이다.

3)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Preschool Teacher Play Support Scale)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성안나 등(2022)이 개발한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교사의 놀이지원자로서 교사의 행동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은 상호작용 11문항(예시: ‘유아를 관찰하며 필요한 도움을 파악한다.’, ‘유아의 놀이에 필요한 도움이나 역할에 교사가 참여한다.’), 놀이자료 6문항(예시: ‘유아가 놀이감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놀이하는 것을 격려한다.’,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사물을 유아들과 함께 찾아보고 활용한다.’), 놀이공간 4문항(예시: ‘공간을 배치하고 구성할 때 유아들 간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놀이영역을 고정해두지 않고 놀이 흐름에 따라 조정한다.’), 놀이와 안전 4문항(예시: ‘공구나 요리 도구 등 위험요소가 있는 도구를 유아가 사용하고 싶어할 때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제공한다.’, ‘놀이를 하면서 필요한 규칙이나 약속을 정하게 한다.’) 등 총 25문항이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교사 자신이 느끼는 놀이지원 수준에 대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항에 대한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는 상호작용 .80, 놀이자료 .75, 놀이공간 .69, 놀이와 안전 .58이며, 전체는 .90이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을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교사들의 성격을 유형화 하기 위해 성격 5요인(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원만성)을 표준점수(Z점수)로 변환하여 덴드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군집의 개수를 확인한 후, 네 집단으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성격유형의 집단에 따라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사의 일반적 특성(연령, 최종학력, 총 경력, 근무기관 유형, 교사 대 유아비율)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집단의 수가 4개 이상일 경우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Bonferroni의 사후검증을 진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교사의 성격유형

유아교사의 성격요인을 유형화하기 위해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원만성의 점수를 표준점수(Z)로 변환 후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덴드로그램은 연구대상들이 군집을 형성하는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각 단계에서 유사하게 조합되는 군집과 거리값을 나타낸다. 유사성은 수직축을 따라 측정되며 다른 관측치는 수평축을 따라 나열된다. 군집화 일정표와 덴드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4개의 군집이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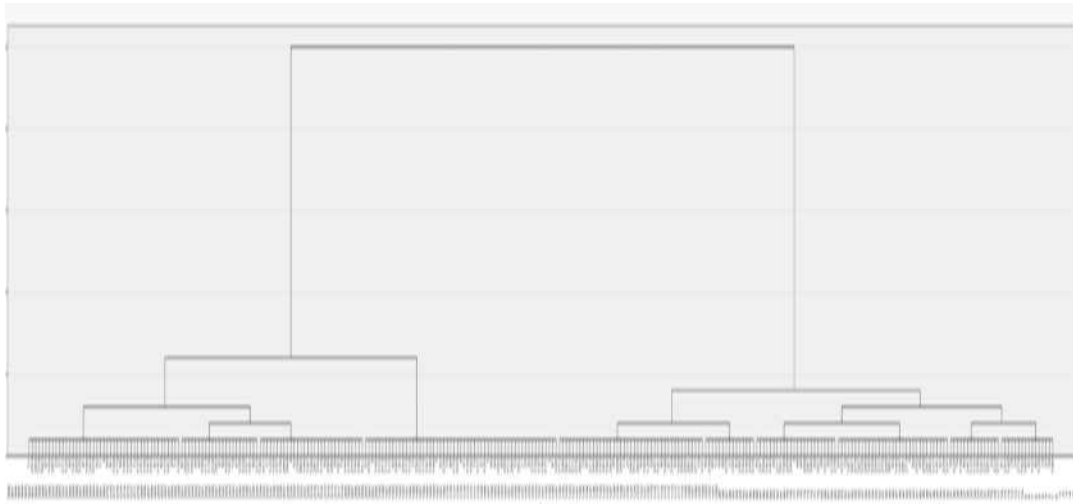


그림 1. 성격유형(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원만성)을 변수로 한 계층적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이후, 군집 수를 4로 지정하여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각 군집의 개방성($F_{(3, 298)} = 113.554, p < .001$)과 성실성($F_{(3, 298)} = 90.222, p < .001$), 그리고 신경증($F_{(3, 298)} = 118.740, p < .001$), 외향성($F_{(3, 298)} = 148.329, p < .001$), 원만성($F_{(3, 298)} = 90.527, p < .00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점수로 환산한 군집 중심을 근거로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군집1은 신경증이 월등히 높고, 개방성은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군집은 새로운 자극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긴장과 불안감, 정서적 불안정 등 환경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감한 집단’($N=87, 29.0\%$)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는 신경증은 평균보다 살짝 높게 나타난 반면, 개방성과 외향성, 성실성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보수적 집단’($N=29, 10.0\%$)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신경증을 비롯한 모든 요인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을 ‘수동적 집단’($N=84, 28.0\%$)으로 명명하였다. 군집4는 신경증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향성, 성실성, 원만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을 ‘적극적 집단’($N=102, 34.0\%$)으로 명명하였다.

표 2. 성격유형에 따른 네 가지 군집유형의 중심 (Z점수)

	민감한 집단	보수적 집단	수동적 집단	적극적 집단	F
개방성	.175	-1.679	-.497	.737	$F_{(3, 298)} = 113.554^{***}$
성실성	-.380	-1.140	-.318	.910	$F_{(3, 298)} = 90.222^{***}$
신경증	.922	.833	-.290	-.784	$F_{(3, 298)} = 118.740^{***}$
외향성	-.497	-1.374	-.214	.991	$F_{(3, 298)} = 148.329^{***}$
원만성	-.114	-.982	-.627	.893	$F_{(3, 298)} = 90.527^{***}$
N(%)	87(29.0%)	29(10.0%)	84(28.0%)	102(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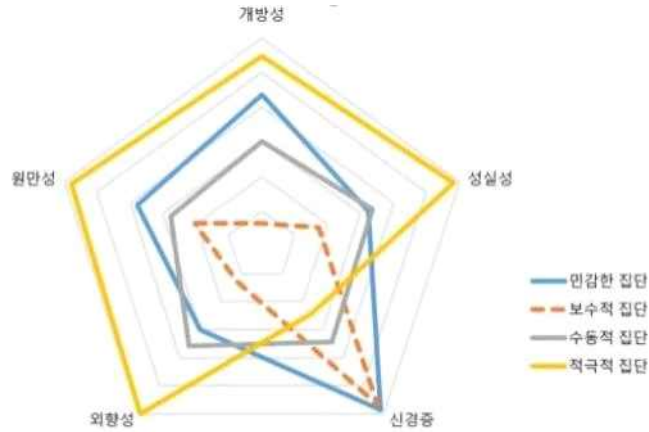


그림 2. 군집유형에 따른 방사형 그래프

2. 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

유아교사의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교사의 연령(년), 최종학력(전문대 이하,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 총 경력(월), 근무기관 유형(개인, 수탁), 교사 대 유아비율(명))을 통제 한 상태에서 유아교사의 성격유형 군집유형에 따른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아교사의 성격유형 군집 유형의 주효과는 교사 자기 효능감 ($F_{(3, 293)} = 18.672, p < .001$)과 놀이지원 ($F_{(3, 293)} = 25.849, p < .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유아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의 차이

종속변수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에타 제곱
교사 자기 효능감	교사 연령	.033	1	.033	.184	.001
	최종학력	.097	1	.097	.542	.002
	총 경력	.176	1	.176	.988	.003
	근무기관 유형	.396	1	.396	2.223	.008
	교사 대 유아비율	.821	1	.821	4.610*	.015
	성격유형 군집 유형	9.976	3	3.325	18.672***	.160
	오차	52.179	293	.178		
합계	4636.765	302				
놀이지원	교사 연령	.005	1	.005	.029	.000
	최종학력	.504	1	.504	2.749	.009
	총 경력	.162	1	.162	.885	.003
	근무기관 유형	.245	1	.245	1.334	.005
	교사 대 유아비율	.843	1	.843	4.596*	.015
	성격유형 군집 유형	14.216	3	4.739	25.849***	.209
	오차	53.713	293	.183		
합계	5027.312	302	4.773			

* $p < .05$, *** $p < .001$.

네 가지의 성격유형 군집유형에 따라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교사 자기 효능감($F_{(3, 301)} = 20.426, p < .001$)에서 적극적 집단(D)은 민감한 집단(A), 보수적 집단(B) 그리고 수동적 집단(C) 등 모든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적극적 집단(D)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교사효능감이 높았다. 그러나 적극적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 간 교사 효능감 차이는 없었다.

놀이지원($F_{(3, 301)} = 27.183, p < .001$)에서는 적극적 집단(D)은 민감한 집단(A), 보수적 집단(B) 그리고 수동적 집단(C) 등 모든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민감한 집단(A)과 수동적 집단(C)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적극적 집단(D)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놀이지원 수준이 높았고, 민감한 집단(A)이 수동적 집단(C)에 비해 놀이지원 수준이 높았다.

표 4. 유아교사 군집 유형에 따른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 간의 차이 사후검증 ($N = 302$)

종속변인	성격유형 군집유형	<i>N</i>	<i>M</i> (<i>SE</i>)	<i>F</i>	Bonferroni
교사 자기 효능감	(A) 민감한 집단	87	3.81(.46)	20.426***	A, B, C < D
	(B) 보수적 집단	29	3.80(.46)		
	(C) 수동적 집단	84	3.69(.43)		
	(D) 적극적 집단	102	4.15(.38)		
놀이지원	(A) 민감한 집단	87	4.00(.46)	27.183***	A > C A, B, C < D
	(B) 보수적 집단	29	3.94(.47)		
	(C) 수동적 집단	84	3.79(.47)		
	(D) 적극적 집단	102	4.34(.36)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성격요인을 유형화하고 어떠한 성격유형이 유아교사의 업무에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기관에 재직중인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성격 5요인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유형화된 네 가지의 성격유형에 따라 교사 자기 효능감과 놀이지원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은 총 네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신경증이 높지만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개방성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민감한 집단($N = 87, 29.0\%$)과 신경증이 평균보다 살짝 높고, 다른 요인들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보수적 집단($N = 29, 10.0\%$), 그리고 신경증을 비롯하여 모든 요인이 평균 이하로 나타난 수동적 집단($N = 84, 28.0\%$), 신경증은 평균보다 낮고 모든 요인이 평균 이상인 적극적 집단($N = 102, 34.0\%$)으로 분류되었다. 네 유형 중 적극적 집단의 사례 수가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감한 집단, 수동적 집단, 보수적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성격유형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 집단’의 유아교사 수가 가장 많았다. Big5 검사를 활용한 다른 직업군에 대한 연구들을 예로 들면, Pérez-Fuentes 등(2019)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집단 1(39.0%), 집단 2(37.7%), 집단 3(23.3%) 등 세 집단을 도출하였다. ‘집단 1’은 신경증을 제외한 모든 성격요인이 높은 유형으로 이 집단에 속한 간호사의 수가 가장 많았다. 이성희와 류경민(2012)은 호텔조리사를 외형적 집단(18.5%), 규제적 집단(30.0%), 호감성 집단(51.5%)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호감형 집단’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유아교사처럼 타인을 상대로 상호작용하는 직업군에서도 신경증이 낮고,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원만성이 높은 집단에 속한 연구대상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업무 또한 기능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렇게 신경증이 낮고 다른 모든 요인이 높은 성격유형을 회복탄력성이 높은 ‘탄력적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Oshio et al., 2018). 즉,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는 성격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을 돌보거나 대인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격유형에 따라 유아교사들의 교사 자기 효능감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적극적 집단이 민감한 집단, 보수적 집단, 수동적 집단과 차이를 보였으며, 유아교사의 교사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적극적 집단’의 유아교사는 신경증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집단의 낮은 신경증은 아직 발달이 미숙한 유아들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하고 기다려 주는 등 인내심과 포용력을 보이고, 높은 개방성은 새로운 방법으로 놀이하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창의적 수업 제안을 할 수 있다. 높은 성실성은 수업준비에 철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외향성은 동료교사들과 협력하거나 외부자원을 찾아나서는 적극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원만성은 유아와 긍정적인 정서적 관계를 맺고 학부모 및 동료 교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Perera 등(2018)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집단 유아교사의 성격과 같은 특징을 갖는 ‘잘 조정된 집단’의 교사가 교사 자기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집단의 유아교사들은 성격 5요인 중 외향성과 성실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박정진과 장유진(2021)은 높은 외향성과 성실성은 영유아 교사의 긍정적 놀이교수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Gibson과 Dembo(1984)는 높은 효능감을 가진 교사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성공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와 상황에 따른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채진영(2016)은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중 하나는 교사의 효능감이며,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들에게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한 배움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권미성과 문혁준(2013)의 연구에서도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가 활동에 흥미를 갖고 몰입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 집단의 유아교사의 성격유형 특성은 높은 교사 자기 효능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감한 집단’은 외향성이 낮고 집단들 중 신경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낮은 외향성은 적극성이 부족한 특징으로 인해 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무응답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이같은 행동은 유아의 놀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학부모 상담이나 민원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대한 제시 등 대처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신경증은 업무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유아들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려움과 마주했을 때 회피하거나 쉽게 일을 그만두는 등 이직의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즉, 유아교사의 낮은 외향성과 매우 높은 신경증은 업무수행에 역기능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사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John(1990)은 외향성이 낮은 경우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며 뒤로 물러서 있는 유형이라고 하였으며, 신경증이 높은 교사는 부정적 감정을 자주 호소하고, 교사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고정완, 2019)가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보수적 집단’은 개방성과 외향성 그리고 성실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이 낮은 경우 지적 호기심 등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유형으로 성취에 대한 목표 의식이 결여되어 자신감 획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은 자신이 맡은 반 일 외에 각종 행사와 행정업무 등 동료교사와 협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성실함과 외향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집단 유아교사의 낮은 성실성은 조직화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결여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등 동료교사와 갈등상황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낮은 외향성은 대인관계나 적극적 문제해결에 취약할 수 있다. 즉, 유아교사의 낮은 개방성과 외향성 그리고 성실성은 스스로 교수 행동을 조직화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의 결과가 교사 자기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동적 집단’은 성격 5요인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이 모두 낮은 유아교사는 낮은 신경증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은 없지만, 일과중 부주의한 태도로 인해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높고, 협력적 교수운영의 어려움, 목표의식이 없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성격 5요인의 수준이 모두 낮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부주의함과 비협조성, 그리고 보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Daniel(2019)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셋째, 성격유형에 따라 유아교사들의 놀이지원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적극적 집단은 민감한 집단, 보수적 집단, 수동적 집단과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아교사의 놀이지원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감한 집단과 수동적 집단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먼저, ‘적극적 집단’ 유형의 유아교사는 신경증 정도가 낮고, 외향성과 성실성이 높으며, 원만성과 개방성 또한 평균 이상인 특징을 갖는다. 박정진과 장유진(2021)의 연구에서도 신경증을 제외하고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수준과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또한, 적극적 집단의 유아교사들은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이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Kim 등(2019)은 타인을 교육하고 정서적 지원을 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외향성이 직무수행에 가장 연관이 높다고 하였다. 즉,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중심의 놀이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향성이라는 성격요인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 집단의 유아교사는 성실

성도 높게 나타났는데 Perera 등(2018)은 성실성이 높은 교사는 규율을 잘 지키고 자기훈련에 철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높은 성실성은 높은 수준의 교육활동 준비를 촉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교수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 (Perera et al., 2018). 이에 비추어볼 때, 성실성이 높은 유아교사는 교육과정 준비에 철저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과 놀이지원을 통해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집단의 유아교사는 유아를 존중하고 유아 중심의 놀이가 실천될 수 있도록 놀이지원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감한 집단’과 ‘수동적 집단’에서도 유아교사 간 놀이지원 수준의 차이가 보였으며 이는 두 집단 간 양극을 보이는 신경증과 개방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경증이 가장 높고 개방성이 평균을 상회하는 민감한 집단은 염려가 많고 불안감은 높지만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극을 거부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이 집단의 유아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놀이에 대한 지원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 새롭게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신경증과 개방성이 모두 낮은 수동적 집단은 안정적이며 스트레스에 강인하지만 관습적이고 비분석적이며 흥미도가 낮은 특징을 갖는다. 이는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걱정이나 스트레스 수준은 낮지만 기존 교육과정을 탈피하고 변화된 교육과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즉, 민감한 집단의 유아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놀이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보이지만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수동적 집단의 유아교사보다 놀이지원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유아교사의 성격유형 중 가장 기능적인 유형은 ‘적극적 집단’이며, 이 유형은 교사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에 해당하는 교사 자기 효능감이 높으며,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놀이지원을 잘 수행하고 있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민감한 집단’은 가장 높은 신경증을 보이는 집단으로 신경증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각하며 안정감을 갖고 침착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신경증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 자신 내면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보수적 집단’은 개방성과 외향성 그리고 성실성이 가장 낮은 유형으로 새로운 정보와 변화에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보다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교육 관련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습 공동체’ 등에 참여시켜 다른 교사들과 교류의 기회를 통해 사교성을 증진시키고, 보다 개방적인 사고로 보육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목표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유아들에게 놀이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수동적 집단’은 성격 5요인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자신의 성격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하며,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질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집단의 유아교사들에게는 자신의 성격특성을 파악해볼 수 있는 성격검사와 더불어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 개별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격검사나 교육 등에 참여시켜 정서적 측면을 지원하여 업

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길러 자신의 업무에 대한 보람과 성취를 통해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자기보고식으로 진행되었다. 유아교사의 성격이나 놀이지원을 관찰과 동료평가 등의 방식으로 측정한다면 더욱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총 네 집단으로 성격이 유형화 되었다. 지역특성에 따라 유아교사의 성격을 유형화 한 집단 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지역을 배분하여 다룰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두 가지 변인(교사 자기 효능감, 놀이지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격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인으로써, 유아교사 직무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성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자신의 성격유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자질을 쌓을 수 있도록 교사교육의 필요성 및 지원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예비교사나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양성을 위해 성격검사가 활성화 되어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교육의 확대를 제안한다. 현대사회는 맞벌이 세대의 증가로 유아교육기관에 장시간 머물러 있는 유아들이 많아짐에 따라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돌봄과 교육을 기대하고, 교사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등 업무강도가 높은 직업군이다. 이렇듯, 본 연구는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하는 유아교사의 개인적 변인인 성격유형의 중요성과 업무수행 간의 관련성을 밝히며, 이와 관련한 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민성, 황선숙, 이루리, 박경애 (2021). 보육교사의 직무환경 및 성격5요인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8(2), 51-71. <https://doi.org/10.15284/kjhd.2021.28.2.51>
- 강민정 (2007). 교육 경력과 MBTI 선호 경향에 따른 유아교사의 창의성의 차이.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3), 25-44.
- 고정완 (2019).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의 관계 및 영향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7), 341-346. <https://doi.org/10.5762/KAIS.2019.20.7.341>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 권미성, 문혁준 (2013).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전문성 수준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4), 277-296.
- 권수경 (2018). 유치원 교사의 Big5 성격요인과 문제행동 지도전략.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 (2014). 예비유아교사의 성격 5요인 및 놀이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1(1), 1-17.
- 김애경 (2015). 예비 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 구, 14(3), 231-253.
- 김양은, 김연하 (2008). 교수 적극성 예측변인 분석: 교사 특성변인, 유아교육기관 근무환경, 교사 효능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8(6), 207-227. <https://doi.org/10.18023/kjece.2008.28.6.010>
- 김연하, 김양은 (2008).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요인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https://doi.org/10.18023/kjece.2008.28.2.008>
- 단현국, 유영의 (2006). 유치원 교사의 MBTI 성격 유형과 놀이에 대한 교사의 교수 효능감의 관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3(2), 267-283.
- 박정진, 장유진 (2021). 영유아교사의 성격 5요인이 놀이교수효능감을 매개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5(5), 31-48. <https://doi.org/10.32349/ECERR.2021.10.25.5.31>
- 백은미 (2018). 어린이집 교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일과 운영방식의 탐색: 교실운영 및 상호작용 관계를 중심으로. **심리유형과 인간발달**, 19(2), 41-62.
- 성안나, 김연하, 이지선 (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에 기초한 유아교사용 놀이지원 척도 개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8(2), 19-38. <https://doi.org/10.14698/JKCCE.2022.18.02.019>
- 신소정, 천성문, 강근미 (2010). 교사의 소진과 5요인 성격 특성과의 관계. **교육치료연구**, 2(1), 77-89.
- 신은수, 유영의, 박현경 (2004). 유아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수 효능감과 놀이 운영 실제 신념에 관한 도구 개발연구. **유아교육연구**, 24(1), 49-69.
- 염연숙, 최인화, 전정민 (2021).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성격유형(HEXACO)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8(4), 143-161. <https://doi.org/10.22155/JFECE.28.4.143.161>
- 유태용, 이기범, Ashton (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이명숙, 최효식, 연은모 (2019). 교육대학교 학생의 성격 5요인에 기초한 잠재적 성격 특성 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3), 71-81. <https://doi.org/10.5762/KAIS.2019.20.3.71>
- 이성희, 류경민 (2012). 호텔 조리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환경부합,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와의 관계. **한국조리학회지**, 18(5), 80-94. <https://doi.org/10.20878/cshr.2012.18.5.006>
- 이진우, 임정은, 김동일 (2022). 성격 5요인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 차이: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40(3), 253-278. <https://doi.org/10.22327/kei.2022.40.3.253>
- 정미영, 안효진 (2012). 유아교사의 성격 유형, 창의성, 그리고 교수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0(3), 25-34. <https://doi.org/10.6115/khea.2012.50.3.025>
- 진달래 (2016). 대학생의 성격 5요인과 Holland의 직업적 성격유형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진영 (2016). 보육교사의 직업적성 및 책임감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57-22. <https://doi.org/10.14698/jkce.2016.12.02.057>
- 최은실, 서보순 (2015). 예비 유아교사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격요인, 행복추구경향이 주관적

-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9(3), 29-52.
- 최인숙 (2019). 영유아교사의 성격 5요인 및 정서적 표현성이 정서노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악기술학회논문지**, 22(11), 564-572. <https://doi.org/10.5762/KAIS.2021.22.11.564>
- 하연수, 김혜순 (2022). 유아교사의 놀이지원효능감 척도개발 및 타당화.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9(3), 93-130. <https://doi.org/10.22155/JFECE.29.3.93.130>
- 황은희, 이영애 (2021). 유아교사의 성격특성 및 놀이성이 창의적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6(1), 165-188. <https://doi.org/10.20437/KOAECE26-1-07>
-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pp. 307-337). Information Age Publishing.
- Barrett, L. (1989). Impact of teacher personality on classroom environment.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8, 50-56.
- Barrick, M. R., & Mount, M. K. (1991).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44(1), 1-26. <https://doi.org/10.1111/j.1744-6570.1991.tb00688.x>
- Costa, P. T., & McCar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how, K. F., & Kennedy, K. J. (2014). Secondary analysis of large-scale assessment data: An alternative to variable-centred analysis.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20(6), 469-493. <https://doi.org/10.1080/13803611.2014.976831>
- Daniel, C. O. (2019). Effects of job stress on employee's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and Social Research*, 6(2), 375-382. <https://doi.org/10.18801/ijbmsr.060219.40>
- Enochs, L. G., Smith, P. L., & Huinker, D. (2000). Establishing factorial validity of the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beliefs instrument.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100(4), 194-202. <https://doi.org/10.1111/j.1949-8594.2000.tb17256.x>
- Gibson, S., & Dembo, M. H.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569-582. <https://doi.org/10.1037/0022-0663.76.4.569>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1), 26-42. <https://doi.org/10.1037/1040-3590.4.1.26>
- Göncz, L. (2017). Teacher personality: A review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guidelines for a more comprehensive theory in educational psychology. *Ope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1), 75-95. <https://doi.org/10.1080/23265507.2017.1339572>
- Holland, J. L. (1958). A personality inventory employing occupational tit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2(5), 336-342. <http://doi.org/10.1037/h0047330>
- Howard, P. J., & Howard, J. M. (2014). **마음을 읽는 지도 빅 파이브**(이호은 옮김). 타임스퀘어. (원판 2010)

- John, O. P. (1990). The “Big Five” factor taxonomy: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the natural language and in questionnaire.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66-100). Guilford Press.
- Kim, L. E., Jörg, V., & Klassen, R. M. (2019).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teacher personality on teacher effectiveness and burnou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31*, 163-195. <https://doi.org/10.1007/s10648-018-9458-2>
- Oshio, A., Taku, K., Hirano, M., & Saeed, G. (2018). Resilience and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 meta-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7*, 54-60. <https://doi.org/10.1016/j.paid.2018.01.048>
- Perera, H. N., Granziera, H., & McIlveen, P. (2018). Profiles of teacher personality and relations with teacher self-efficacy, work engagement, and job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0*, 171-178. <https://doi.org/10.1016/j.paid.2017.08.034>
- Pérez-Fuentes, M. D. C., Jurado, M. D. M. M., Martínez, Á. M., & Linares, J. J. G. (2019). Burnout and engagement: Personality profiles in nursing professionals.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8*(3), 286. <https://doi.org/10.3390/jcm8030286>
- Riggs, I., & Enochs, L. (1990). Further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A preservice elementary scale. *Science Education, 74*(6), 625-637. <https://doi.org/10.1002/sce.3730740605>
- Tschannen-Moran, M., & Hoy, A. W. (2001). Teacher efficacy: Capturing an elusive construc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7*(7), 783-805. [https://doi.org/10.1016/S0742-051X\(01\)00036-1](https://doi.org/10.1016/S0742-051X(01)00036-1)

논문투고 : 23.04.22.
 수정원고접수 : 23.06.07.
 최종게재결정 : 23.06.12.